



늘 푸 른 어 린 이 도 서 관

#인천 연수구 #임대로 지원

1998년 개관, 올해로 스무 살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없었던 도서관의 불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독립도서관 설립을 위한 시민운동을 이끌었던 민간 사립작은도서관의 명맥을 유지하며, 지역의 독서문화운동을 이끄는 도서관으로서 20년째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책의 소중함, 책 읽는 민주시민의 힘을 기르고 나누는 공간

독서동아리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 운영, 그림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 지역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를 통한 영역의 확대 등으로 민간 사립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어오는 묵묵한 힘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은 미래를 꿈꿉니다. 슬로건인 '나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을 기반으로 '함께 읽고, 함께 만나고,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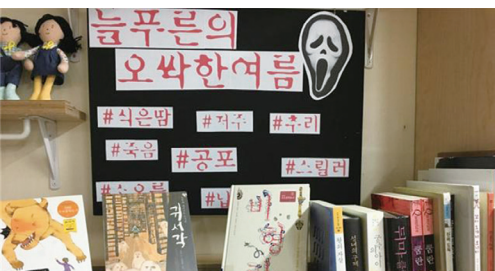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공간이 너무 소중하지만,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도 있어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은 2, 3층을 사용 중인 월세 세입자입니다.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고, 월세 부담도 컸습니다. 공간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에 불만이 컸지만, 이야기할 곳도 없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지자체 별로 생기기도 했지만, 월세를 지원하는 곳은 없었으니까요. 도서관은 수익을 내는 공간이 아니기에. 2017년 새해 계획을 짜면서도 정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 때 만난 긴급지원119는 정말 고마운 기회였습니다. 월세, 인건비 등 자유롭게 써도 좋다고 하여, 당연히 공간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결정하고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실제로 지원금이 들어왔을 때,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의 운영위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긴급지원119를 만난 후, 도서관에서 잠시 미뤄두었던 일상의 일들이 보였습니다. 미뤄두었던 장서점검을 제대로 하고, 서가의 위치를 이용자들이 더 편하게 이용하도록 바꾸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북큐레이팅을 정기적으로 실시, 이용자들에게 좋은 책을 권하고 함께 읽는 ‘늘푸른’다운 일상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나 팀장들도 도서관의 고민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늘푸른은 지원사업 등을 팀장, 운영위 단위로 공개,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생각 등이 좀 더 진지하게 와 닿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공간의 안정화는 도서관의 일상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늘푸른’다운 일상이 돌아온 2017년. 늘푸른의 장점을 전체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좋은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늘푸른이 가진 장점은 그림책을 중심으로 한 장서와 그것을 읽어내는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도서관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역량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 그동안은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는 계기가 적었습니다. 2017년에는 일상 속에서 늘푸른의 장점을 알리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별 북큐레이팅에 대한 반응은 무척 긍정적이었지요. 북큐레이팅을 위해 책들을 쌓아두고 고민하는 동아리 사람들을 보는 것, 아가와 엄마가 함께 독서동아리모임을 하고, 책 읽는 엄마 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아이를 보는 것... 평화롭게 돌아온 늘푸른의 일상이 기억에 남습니다.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20살을 잘 정리하고 한 점을 찍고 가야하는 시기입니다.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은 올해 20살입니다. 그 고민 안에는 공간, 사람, 책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하는 장을 만들 것입니다. 일상을 단단히 잡고, 지역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책 읽고 고민을 나누는 장소로서 늘푸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합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간사립작은도서관을 유지한다는 것은 녹록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이 끌어내는 힘은 큼니다. 힘냅시다!

